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란다 _ 문학

도도하게 가난과 씨름하는 예술가들을 지켜준다면

culture 'art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동안 가난한 문인이나 예술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아 주려는 노력을 기울여 위원회의 성격으로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다가가려는 새 제도를 만들었다. 여러사람의 위원이 마음을 모아 문화예술인의 문제를 읽고 빠뜨림 없는 분배와 고른 마음 쏟기가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다행스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번 글에서 새로운 진영의 문예진흥 사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현기
- 문학평론가
- 연세대학교 교수

진짜 민주주의란 제비뽑기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장관, 지사, 군수들을 임명하고 월급은 제때에 그래도 적절하게 주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서양이나 그쪽으로부터 빌려온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끼리끼리 짜고 떠돌고 소문을 낸 다음 한 자리씩 도맡아 국민들의 세금이나 축내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정치적인 술책이나 기술이 필요 없이 돌아가면서 너도나도 제비가 뽑히면 도리 없이 국민에게 봉사하다가 나오면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 하던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요즘 특하면 지역정서니 지역감정이니 하는 따위 정치적 용어는 저절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 아닐 것인가? 우리는 이제까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와 그동안 모았던 대통령 월급으로 조촐하게 산다는 사람을 본적도 없고 들어 본적도 없다. 모두 분수에 지나친 재산을 축재하고 감췄다는 이야기만 무성하게 들려 도대체 자존심이 있는 도도한 대통령을 한 사람도 가져 보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시달린다.

제도란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므로, 그 그릇에 따라 달라질 수도……

조선 왕조 마지막 시대의 생활 이야기를 적은 정교의 『대한계년사』나 황현의 『매천야록』 등을 읽으면 왕권에 빌붙어 백성들이 거둔 재물을 빼앗아 배를 채우고 눈을 부라리는 괴물 관리들 이야기와 왕들의 권속 이야기가 심기를 무척 어지럽힌다. 게다가 요즘 많이 읽히는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전쟁』 이야기는 당대(1047년부터 1100년대까지) 유럽인들의 야만적 행적이 너무 끔찍한 탐욕 부림과 무자비한 행적들이어서 그들이 특하면 내세우곤 하는 문명이니 예술이니 문화니 하는 따위의 이야기가 모두 꿈속의 도깨비들 잔치 같아 징그럽기 짝이 없다. 1894년 당시 전봉준, 김개남 등 동학농민전쟁을 일으켰던 용기 있던 농민군들에 대한 기겁과 탄압,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던 왕권 들레 기득권자들의 야만스런 행적 또한 오늘날 행해지는 것과 비슷한 짝처럼 읽혀 머리털이 곤두설 뿐이다.

제도가 사람의 탐욕이나 열등감을 막아준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도란 그것이 어떤 꼴의 제도이든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므로 사람됨의 그릇과 사심 없음에 따라

모든 제도는 빛을 내기도 하고 더럽게 망가지기도 한다.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말은 현재 가장 솔직한 구호이긴 하니까 것처럼 특하면 남의 나라를 침공하면서도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고 눈을 부라리거나 위협하는 힘센(?) 나라들의 행패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로구나 하고 우울해 한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진 이런 시대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빛나는 결실이 있겠지만 그것이 모두 돈으로만 이루어진다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가 정부를 갖춘 다음 그 나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고른 행운과 나눔의 질서를 갖추기를 사람들은 모두 꿈꾼다.

여러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빠뜨림 없는 분배와 고른 마음 쏟기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동안 가난한 문인이나 예술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아 주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오랜 동안 지켜보았다. 마침 문예진흥원이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다가가려는 새 제도를 만든 모양이다.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전체 문화예술인의 문제를 읽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위원이 마음을 모아 빠뜨림 없는 분배와 고른 마음 쏟기가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다행스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소박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새로운 진영의 문예진흥 사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을 적으려 한다.

첫째, 이 위원들의 모임이 사심 없고 도저한 모임으로 운용되기를 바란다. 앞에 언급한 책에서 읽은 바 무슬림 아랍인들이 서유럽 프랑크인들의 침략행위를 막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이익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파, 정파, 권력욕에 눈 먼 왕자들의 분열 때문이었음이 너무 선연하게 드러난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면서 뿌린 말이 바로 그것이었다. 당대 일본의 각종 책략가들은 너희 조선인들은 둘만 모여도 분열되는 미개인이었다는 관념 만들기에 능하였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나라 전체를 위해 큰일을 결정하려 할 때 제발 위원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계층, 학벌, 정파의 눈치를 살피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를 바란다. 어떤 사건이나 사안이 떠오

르면 반드시 그 반대 이야기가 떠들썩한 분열 논리로 둘러싼다. 이런 것을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견 드러냄이라 존중되곤 하는 것이지만, 고식적으로 굳어진 분열 행태는 적들에게 언제나 즐거운 징조인 것이다. 마음을 모을 때는 개인의 개인성을 넘어 과감하고도 흔쾌하게 마음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나는 적는다.

둘째, 위원들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인이나 예술가들을 눈여겨보기를 바란다. 가난은 비록 두려운 질병이고 모두가 다 피하고 싶어하는 결핍이지만, 그것이 문학예술을 죽이는 조건은 아니다. 자존심 있는 예술가들은 가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어찌면 예술의 기본 조건일 수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현실적으로 살찐 예술가들이 오히려 창작의욕을 다른 쪽에 낭비하거나 통속화하기 쉬운 법이다. 문학예술을 아예 상업적인 쪽에 눈 맞추고 있는 경우를 눈여겨 볼 일이다.

셋째, 한국의 문학예술이 대국적이고 지성적인 눈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부추기는 힘에 보탬이 되도록 진흥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정인보 선생은 한국문학의 원류를 '어짚의 피차 한 덩어리인 큰 사랑'이라고 적고 있다. '어짚의 피차 한 덩어리인 큰 사랑'이란 정말 어떤 것일까? 어짚(仁)을 나에게 다가가는 착한 마음이라고 읽는다면, 한국의 문학예술 진흥을 위해 우리 모두가 큰사랑을 모으는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 아닐 것 인지, 나는 그렇게 믿고 또 바란다.

